

또 터진 손흥민 '광속 역습 골'...적장도 찬사

수비 벽 깨트리며 벼락 동점골
클럽 감독 "괴물 같았다" 감탄
리그 11골로 득점 공동 선두
토트넘은 리버풀에 1-2 패

'적장'도 손흥민(28)을 앞세운 토트넘의 '광속 역습'에 혀를 내둘렀다. 손흥민은 17일 오전 (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2020-2021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토트넘이 0-1로 뒤진 전반 33분 동점골을 넣었다. 리그에서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올린 손흥민은 리그 11골 4도움으로 득점 공동선두로 올라섰다. 이 골은 손흥민이 리버풀을 상대로 2017년 10월

리그 맞대결(토트넘 4-1 승) 이후 3년 만에 기록한 골이기도 했다. 손흥민의 11호골 장면은 너무도 간결하고 빨랐다. 앞선 리버풀의 공격에서 사디오 마네의 오버헤드 크기가 풀키며 위고 요리스의 품에 안겼다. 이어 공을 잡은 토트넘 미드필더 지오바니 로셀소가 빠르게 드리블을 하다가 왼쪽에서 달려가던 손흥민을 향해 상대 뒷공간을 여는 패스를 찰라쳤다. 재빨리 치고 나가 노마크 기회를 잡은 손흥민은 오른발 슈팅을 골대 하단 구석에 꽂았다. 요리스의 패스부터 로셀소의 드리블, 손흥민의 슈팅까지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로셀소의 빠른 전개와 패스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손흥민의 빠른 발과 수비 라인을 깨는 능력이 빛난 골 장면이었다. 로셀소가 패스하는 순간 손흥민이 상대 수비라인과 동일선상에 있어 오프사이드 여부를 두고 비디오 판독(VAR)이 이뤄지기도 했다. 전반 26분 무함마드 살라흐의 선제골로 앞서나

갔던 리버풀은 손흥민의 동점골 탓에 끝까지 살 떨리는 승부를 펼쳐야 했다. 리버풀은 후반 45분 피르미누의 헤딩 결승골이 터지면서 겨우 2-1로 이겼다. 위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도 끝까지 가슴을 졸이게 한 손흥민의 골 장면을 두고 "토트넘은 역습 괴물이었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클롭 감독은 "못 믿을 정도로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이뤄진 판정이었다"며 손흥민에 대한 '온사이드' VAR 판정에 대해서는 아쉬워하면서도 "손흥민과 스테번 베르흐베인의 스피드는 놀라웠다"고 칭찬했다. 이날 승리로 리버풀(승점 28)은 토트넘(승점 25)을 제치고 단독 선두로 뛰어올랐다. 리그 홈 66경기 무패(55승11무) 기록도 이어갔다. 클롭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오늘 보여준 경기력은 매우 특별했다"면서 "승리를 거둘 자격이 있었다"고 칭찬했다. /연합뉴스



손흥민의 골 장면을 두고 "역습 괴물이었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은 리버풀의 클럽 감독. /연합뉴스

LPGA 최종전 앞둔 박인비

"이번 시즌은 선물...올림픽 포기 못해"

CME 챔피언십 오늘 개막
"퍼트가 승부의 열쇠 될 것"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최종전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박인비(32·사진)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른 이번 시즌을 "선물"이라고 표현했다.

박인비는 대회를 하루 앞둔 17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올해 경기를 할 수 있었다는데 감사하게 여긴다.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안전하게 경기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면서 "사실은 올해는 경기하지 못할 줄 알았다. 이번 시즌은 선물"이라고 말했다.

"8월에 복귀하면서 그저 대회마다 최선을 다하자고 나 자신에게 당부했다"는 박인비는 "경기할 기회가 주어진다 감사하지만 마음은 딱히 목표도 세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호주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박인비는 "시즌 초반에는 정말 샷 감각이 좋았다. 올해는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쉬었고 8월에 복귀할 때 2월의 종단 감각을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했다. 복귀했을 때는 녹이 슨 느낌이었다"고 이번 시즌을 돌아봤다.

박인비는 "8월에 복귀해서도 그럭저럭 잘 해냈고 우승 문턱에서 몇 번 물러났지만 좋은 경기를 했고 일관성을 유지했다고 자부한다. 그래도 다른 어떤 것보다 경기를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거듭 힘줘 말했다.

상금왕과 올해의 선수상을 놓고 김세영과 경쟁을 벌이는 박인비는 "받으면 좋겠지만 정말 솔직히 말해서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고 마음을 비웠음을 알렸다.

그러나 도쿄 올림픽 출전에는 강한 의욕을 보였다.

"올림픽은 내가 경기에 나서서 이유"라는 박인비는 "내년에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나는 매 대회 최선을 다할 뿐이고 기회가 주어진다 정말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퍼트가 승부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박인비는 내다봤다.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클럽에서는 수없이 자주 경기를 해봤지만 "그린을 정복하지 못했다"고 토로한 박인비는 "그린까지 가는 과정은 큰 문제가 아닌데 그린에 까다롭고 라인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박인비는 US여자오픈을 추운 날씨 속에 월요일까지 치르느라 쌓인 피로를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도 승부의 변수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K리그1 내년 선수 교체 5명으로

코로나 일정 고려 확대
K리그2는 3명 그대로

2021시즌 K리그1에서 최대 5명이 교체 선수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17일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2021년에 개최되는 국내 경기에서 교체 선수의 수를 5명으로 하기로 결정하면서, 2021시즌 K리그1 경기의 선수 교체 인원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지난 15일 열린 제8차 이사회에서 IFAB가 2021년 국내 대회의 선수교체 인원 5명 운영을 결정할 경우 이를 2021시즌 K리그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IFAB는 16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교체 인원 관련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다.

IFAB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팀당 5명까지 교체 선수를 늘리는 임시 규정'을 국내 대회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제 대회는 2022년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연맹은 올 시즌 취소된 A매치 일정이 2021년에 추가되거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변동으로 리그가 빠듯한 일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고려해 IFAB의 방침에 맞춰 선수 교체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1시즌 교체 선수는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다. 경기 흐름을 위해 교체 횟수는 3회(하프타임 교체는 별도)로 제한한다. 출전선수 명단은 출전선수명단은 기존 18명 유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교체 선수 확대는 A매치 영향이 적고, ACL에 참가하지 않는 K리그2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아버지 골프대회 나가는 우즈와 아들 우즈 캐디父子가 골프백 책임진다

부자(父子)골프 대회 PNC 챔피언십에 아버지이자 이거 우즈(미국)와 함께 출전하는 찰리 우즈(11)의 캐디를 우즈의 캐디인 조라카바의 아들이 맡아 화제다.

오는 20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PNC 챔피언십에 찰리의 백은 조라카바 주니어(22)가 메거트했다고 골프다이제스트가 17일 전했다.

아버지 라카바는 변함없이 타이거 우즈의 백을 책임진다.

두 쌍의 아버지와 아들이 한 팀이 되어 경기에 나서는 셈이다.

라카바는 "한 달 전쯤에 우즈가 나더러 PNC 챔피언십에 찰리와 나가겠다고 하면서 아들이 찰리 캐디를 해줬으면 하더라"면서 "아버지와 아들 선수에 아버지와 아들 캐디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캐디 라카바와 대화하는 우즈. /연합뉴스

말했다. 대학 3학년생인 조 라카바 주니어는 골프 실력이 출중하다. 지난해 아버지와 함께 코네티컷 부자 골프 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다.

조 라카바 주니어는 "친구들 캐디를 해본 적은 있다. 정말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조제
2관	도굴
3관	언플랜드
4관	조제
5관	런
6관	이웃사촌
9관	이웃사촌
7관 씨네커플	러브 액츄얼리, 레벨 16
8관 씨네커플	리플레이, 호프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시간 속의 도시

2020. 12. 3.(목) ~ 27.(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잠자는 숲 속의 미녀

2020. 12. 18.(금) ~ 2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GAC 기획공연 - 포시즌

선우예린 피아노 리사이틀

2020. 12. 30(수)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